

취업준비 대학생의 성격특성(BIG5)과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김용준*

초 록

본 연구는 취업준비 대학생의 성격특성(BIG5)과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설계되었으며, 조사대상자는 C시의 M대학교와 C대학교의 졸업예정 학생인 2학년과 3학년과 1학년 중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총 665명을 대상으로 조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20년 09월 07일 ~ 09월 11일까지 일주일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준비 대학생의 성격특성(BIG5) 중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은 진로준비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취업준비 대학생의 성격특성(BIG5) 중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이 셀프리더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취업준비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셀프리더십이 성격특성(BIG5)과 진로준비 행동과의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성격특성(BIG5)의 하위요인별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성, 개방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취업준비 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 상담시 성격특성에 따라 진로준비를 하게하는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셀프리더십은 성격특성과 진로준비 활동에 중요한 매개효과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의 리더십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학생들의 취업지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성격특성, 진로준비 행동, 셀프리더십

* 마산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E-mail: social-kim@masan.ac.kr)
투고일: 2020년 10월 21일, 수정일: 2020년 10월 27일, 게재확정일: 2020년 11월 2일

I. 서론

올바른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개인의 성공과 인생에 대한 만족과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대학을 선택하는 현실과 증가하고 있는 청년실업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고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로 결정에 있어 하나의 선택지인 대학으로의 진입은 보다 성숙한 성인이 되기 위한 입문이자, 앞으로의 일과 관련된 자신의 진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장이다(Niles & Harris-Bowlsby, 2009). 대학생 시기는 구체적인 진로 결정을 준비하는 시기이다(Meyer & Winer, 1993).

지금까지 진로준비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변인, 심리·정서적 변인, 환경적 변인을 중심으로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의 영향관계 연구가 이루어져왔다(박정희·김홍석, 2009; 장현지·홍아정, 2014; 노운신, 2016; 이애용, 2020; 이현민, 2020; 이성희, 2020).

진로준비에 있어서 진로준비 행동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개인은 자신이 희망하고,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느끼는 진로를 선택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고 삶의 질이 높아질 때 행복한 삶을 도모할 수 있다(박헌일·김기원, 2003; Lounsbury, Park, Sundstrom, Wiliamson, & Pemberton, 2004).

진로준비 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하여 실행해야하는 행동과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 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준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준비 행동 차원에서의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엇보다 이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격특성과 진로준비 행동의 실태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에서는 취업 준비 대학생들의 성격특성에 따른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련성과 그들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셀프리더십이 성격특성과 진로준비 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취업준비 대학생의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성격특성(BIG5)

성격이란 개인의 특징적인 사고, 감정, 행동양식의 경향으로, 정신생활의 영역에서 나타

남과 동시에 타인과 구별되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격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상황에 의해 경험적으로 누적되는 특징을 지닌다(Randolph & Dahling, 2013).

성격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이견이 존재하지만, BIG5 성격은 성격연구의 접근 방법 가운데 특성이론의 관점에서 시도되었으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성격특성은 5개 요인 즉, 외향성(extraversion), 호감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정서적 안정(emotion stability/neuroticism),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5개 요인은 개인들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Buss, 1989).

또한 McCrae와 Costa는 성격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Cattell이 개발한 NEO 모형(신경증, 외향성, 개방성)에 Goldberg가 발견한 5요인과 Norman의 이론을 바탕으로 NEO 모형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친화성과 성실성을 추가하여 심리검사 및 실증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NEO-PI-R(NEO Personality Inventory)을 개발하였다(McCrae & Costa, 1987). McCrae와 Costa(1997)가 개발한 5개의 요인은 성실성, 친화성, 신경성, 개방성, 외향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성격특성을 “개인의 행동양식과 감정 그리고 사고하는 방식에 의해 성장과정에서부터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상황과 경험에 의해 타인과 구분되는 독특한 성향”이라고 정의한다.

2. 진로준비 행동

진로준비 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이 결정한 진로를 성취하는데 필요하다(최윤경, 2013).

진로준비 행동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로는 김봉환(1997)이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서 진로와 관련하여 인지나 태도의 차원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 모두를 준비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김선중(2005)은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실천하는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의 과정을 진로준비 행동이라 정의하였으며, 이예진·이기학(2010)은 개인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 직업정보를 수집하고 사전교육을 하는 등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진로활동과 진로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준비하고 개발하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 행동이란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정보수집 활동, 도구준비 활동, 목표달성 활동 등 구체적인 차원에서의 진로준비를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목표 실현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가 진로결정 후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은 1980년대 조직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구성원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종전의 전통적인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고조되면서 자기관리(self-management)의 확대로 Manz(1986)가 최초로 제안한 개념이다.

셀프리더십은 과업이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 주도(self-direction)와 자기 동기부여(self-motivation)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며(Manz, 1986), 과업이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주도와 자기동기 부여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Manz, 1986; Manz & Neck, 1999; Neck, Stewart, & Manz, 1995).

진로준비 행동은 자율성과 자발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셀프리더십의 특성들은 진로준비 행동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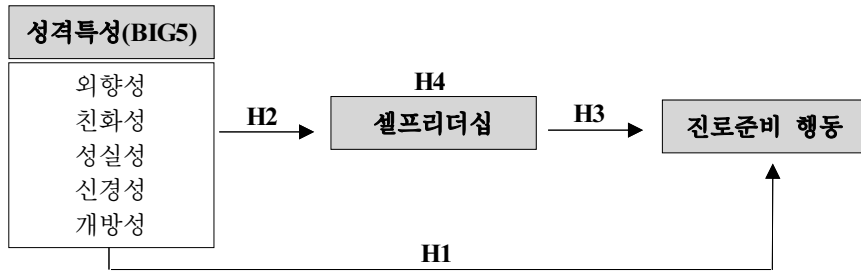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자신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행하는 행동과 생각을 스스로 지각하여 자기 스스로 자신을 취업으로 이끌어 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수는 성격특성(BIG5), 종속변수는 진로준비 행동으로 설정하였으며, 매개변수로 셀프리더십을 설정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와의 관계,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취업준비 대학생의 성격특성(BIG5)과 진로준비 행동 간의 영향을 살펴보고 셀프리더십이 성격특성과(BIG5)과 진로준비 행동 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취업준비 대학생의 성격특성(BIG5)은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1. 외향성은 진로준비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친화성은 진로준비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성실성은 진로준비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4. 신경성은 진로준비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5. 개방성은 진로준비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취업준비 대학생의 성격특성(BIG5)은 셀프리더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1. 외향성은 셀프리더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2. 친화성은 셀프리더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3. 성실성은 셀프리더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4. 신경성은 셀프리더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5. 개방성은 셀프리더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취업준비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취업준비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성격특성(BIG5)과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 측정도구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자료수집을 위해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문항은 성격특성(BIG 5), 진로준비 행동, 셀프리더십,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1) 성격특성(BIG5)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격특성(BIG5)의 조사도구로 Costa & McCrae(1992)가 제작한 성격질문지를 제작한 성격질문지를 이경임과 안창규(1996)가 국내실정에 맞게 번역하여 제시한 NEO-PI-R을 김재경(2007)이 재구성한 것을 선별하여 25개의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성격특성 요인은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 등의 속성을 포함하여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2) 진로준비 행동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준비 행동은 김봉환·김계현(1997)이 개발한 척도를 임은미·이명숙(2003), 권나영(2019), 박효식(2019), 김성양(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바탕으로 총 15개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3) 셀프리더십

본 연구에서 사용한 셀프리더십의 척도는 Houghton & Neck(2002)이 개발한 SLQ (self-leadership question naire)를 신용국 외(2009)가 국내 실정에 맞게 번역하여 제시한 지표를 바탕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설문문항은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한 3문항과 졸업 후 희망진로, 현재 희망 직업분야와 전공일치 여부, 희망취업 분야 취업준비 방법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C시의 M대학과 C대학의 졸업예정 학생인 2학년과 3학년과 1학년 중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총 665명을 대상으로 조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0년 09월 07일 ~ 09월 11일까지 일주일간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는 총 665부로 모두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증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으

며, 통계처리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도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가설의 검증에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은 남성 276명(41.5%), 여성 389명(58.5%)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1학년 17명(2.6%), 2학년 329명(49.5%), 3학년 319명(48.0%)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은 보건 292명(44.1%), 인문·사회 110명(16.6%), 예·체능 94명(14.2%), 공학 81명(12.2%), 자연 39명(5.9%), 부사관(해군부사관) 29명(4.4%) 순으로 나타났고, 졸업 후 희망진로는 병원 252명(37.9%), 전문직 164명(24.7%), 공무원 64명(9.6%), 사기업 37명(5.6%), 공기업 36명(5.4%), 편입(유학) 28명(4.2%), 프리랜서(창업) 27명(4.1%)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희망 직업분야와 전공일치여부는 일치함 580명(87.2%), 일치하지 않음 85명(12.8%)으로 나타났고,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 통해 433명(65.1%), 취업준비를 아직 하고 있지 않음 89명(13.4%), 독학으로 79명(11.9%), 대학의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32명(4.8%), 학원수강을 통해 26명(3.9%), 스터디를 통해 6명(0.9%)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1) 성격특성(BIG5)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성격특성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KMO값이 0.920,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chi^2=8409.427(df=300, p=0.000)$ 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의 선정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총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누적분산 설명력은 64.033%로 나타났다. 즉, 요인 1(15.256%)은 ‘신경성’으로, 요인 2(13.689%)는 ‘외향성’으로, 요인 3(12.341%)은 ‘성실성’으로, 요인 4(11.764%)는 ‘친화성’으로, 요인 5(10.983%)는

‘개방성’으로 명명하였다. 총 5개 요인의 적채치는 0.40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검증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신뢰도는 0.60 이상으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성격특성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문항	성분				
	신경성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
19. 나는 열등감, 강박감이 심하다.	.864	-.140	-.004	.006	.024
18. 나는 늘 슬프고 무력감에 빠져 있다.	.857	-.140	-.053	-.015	-.069
20. 나는 작은 일에도 매우 민감한 편이다.	.849	-.110	-.071	-.031	.101
17. 나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한다.	.816	-.024	-.099	-.018	.010
16. 나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다.	.782	-.090	-.106	.091	-.008
2.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164	.791	.206	.093	.188
1. 나는 사람을 늘 따뜻하게 대한다.	-.150	.739	.116	.285	.199
5.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끄는 편이다.	-.061	.719	.380	.054	.087
4. 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118	.713	.322	.192	.196
3. 나는 매사에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한다.	-.159	.663	.277	.228	.131
12. 나는 사람을 잘 조직하고 관리한다고 생각한다.	.000	.340	.747	.102	.090
13. 나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091	.275	.682	.236	.222
11. 나는 성실하다고 생각한다.	-.060	.250	.669	.290	.127
14.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자 노력한다.	-.191	.164	.647	.235	.273
15. 나는 맡은 바 임무를 확실히 처리한다.	-.187	.256	.555	.282	.275
8.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한다.	.016	.207	.186	.765	.047
10. 나는 남을 존중하고 나를 높이지 않는다.	.134	.023	.091	.744	.030
9. 나는 모든 형상(사물)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067	.089	.284	.691	.182
7. 나는 모든 일에 정직하다.	-.075	.187	.381	.615	.135
6. 나는 사람을 잘 믿는 편이다.	.028	.349	.062	.572	.174
22. 나는 문화생활 및 여가를 즐긴다.	-.048	.112	.182	.054	.761
23. 나는 감수성이 예민한 편이다.	.245	.054	.027	.171	.682
24. 나는 새로운 체험을 좋아한다.	-.098	.205	.219	.059	.668
25. 나는 나와 다른 타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159	.123	.351	.015	.633
21.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생각한다.	-.180	.316	.023	.326	.625
고유값	3.814	3.422	3.085	2.941	2.746
분산설명(%)	15.256	13.689	12.341	11.764	10.983
누적설명(%)	15.256	28.945	41.286	53.050	64.033
신뢰도	.901	.878	.849	.797	.776

KMO=.920, Bartlett's test $\chi^2=8409.427$ (df=300, p=0.000)

2)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KMO값이 0.953,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chi^2=7832.305(df=105, p=0.000)$ 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의

<표 2>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문항	성분
	진로준비 행동
6.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거나 혹은 방문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843
8.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812
7.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TV 프로그램, 전시회, 설명회 등을 시청하거나 참관한 적이 있다.	.807
15.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804
5.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훈련 기관 혹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나 팸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 보았다.	.804
12.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 준비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801
14.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학원 등에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800
13.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진로준비를 하고 있다.	.793
4.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팸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보았다.	.787
9.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785
1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758
10.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센터(취업지원센터)를 비롯하여 그 밖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754
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 있다.	.725
2.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 있다.	.680
1.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676
고유값	9.048
분산설명(%)	60.319
누적설명(%)	60.319
신뢰도	.953

KMO=.947, Bartlett's test $\chi^2=7832.305$ (df=105, p=0.000)

선정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총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누적분산 설명력은 60.319%로 나타났다. 즉, 요인 1(60.319%)은 ‘진로준비 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총 1개 요인의 적재치는 0.40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검증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신뢰도는 0.60 이상으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셀프리더십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셀프리더십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KMO값이 0.956,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chi^2=7670.071(df=105, p=0.000)$ 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의 선정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누적분산 설명력은

<표 3> 셀프리더십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문항	성분
	셀프 리더십
6. 나는 어떤 과제를 맡든지 즐겁게 수행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구상한다.	.848
7.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스스로 동기부여를 한다.	.800
8. 나는 과제를 맡으면 마무리하는 것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수행하려고 한다.	.797
11. 나는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먼저 상상해 본다.	.787
14. 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 이를 잘 극복하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본다.	.783
12. 나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공적인 수행에 대해서 마음 속에 그려본다	.774
13. 나는 중요한 과제를 맡으면 내가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 상상을 하곤 한다.	.771
9. 나는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 혹은 공부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야를 찾는데 관심이 많다.	.769
10. 나는 학교나 학과에 관련된 활동 중 불만족스러운 측면보다는 즐거운 측면의 생각들을 더 많이 한다.	.768
3. 나는 단기적 목표 뿐만 아니라 장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삶의 장기적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곤 한다.	.766
15.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잘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할 때가 있다.	.759
1. 나는 공부나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759
5. 내가 많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평상시 좋아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격려하고 보상한다.	.752
4. 나는 과제를 잘 해냈거나 시험을 잘 보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보상한다.	.752
3. 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분화하여 작성한다.	.749
고유값	9.032
분산설명(%)	60.217
누적설명(%)	60.217
신뢰도	.953

KMO=.956, Bartlett's test $\chi^2=7670.071 (df=105, p=0.000)$

60.217%로 나타났다. 즉, 요인 1(60.217%)은 ‘셀프리더십’으로 명명하였다. 총 1개 요인의 적재치는 0.40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검증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신뢰도는 0.60 이상으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검증

성격특성(BIG5)과 진로준비 행동, 셀프리더십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격특성(BIG5)은 하위요인별 ‘외향성’(M=3.75), ‘성실성’(M=3.64), ‘개방성’(M=3.63), ‘친화성’(M=3.60), ‘신경성’(M=2.69) 순으로 나타났고, 진로준비 행동은 평균 3.37점, 셀프리더십은 평균 3.49점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격특성(BIG5)의 하위요인별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은 진로준비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성격특성(BIG5)의 하위요인별 신경성은 진로준비 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성격특성(BIG5)의 하위요인별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은 셀프리더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성격특성(BIG5)의 하위요인별 신경성은 셀프리더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마지막으로 진로준비 행동은 셀프리더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4> 각 변수 간 상관관계

구분	M±SD	성격특성(BIG5)					진로준비행동	셀프리더십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성	개방성		
외향성	3.63±.711	1						
친화성	3.60±.650	.498***	1					
성실성	3.64±.664	.675***	.571***	1				
신경성	2.90±.888	-.283***	-.031	-.219***	1			
개방성	3.64±.640	.476***	.406***	.522***	-.011	1		
진로준비 행동	3.37±.791	.524***	.455***	.571***	-.169***	.374***	1	
셀프리더십	3.49±.697	.526***	.433***	.598***	-.175***	.370***	.593***	1

** $p<.01$, *** $p<.001$

4. 가설의 검증

1) 가설1의 검증

취업준비 대학생의 성격특성(BIG 5)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7.9%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80.530, p<.001$). 독립변수별로는 성격특성(BIG5)의 하위요인별 성실성($\beta=.312, p<.001$), 외향성($\beta=.200, p<.001$), 친화성($\beta=.154, p<.001$)이 진로준비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격특성(BIG 5)의 하위요인별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취업준비 대학생의 성격특성(BIG 5)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F	R ² (Adj.R ²)
	B	S.E	β				
(상수)	.403	.199		2.021	.044	80.530***	.379 (.375)
외향성	.222	.049	.200	4.512***	.000		
친화성	.188	.047	.154	3.985***	.000		
성실성	.372	.056	.312	6.692***	.000		
신경성	-.035	.029	-.039	-1.186	.236		
개방성	.065	.046	.053	1.417	.157		

종속변수 : 진로준비 행동

p<.001

2) 가설2의 검증

취업준비 대학생의 성격특성(BIG 5)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9.4%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85.598, p<.001$). 독립변수별로는 성격특성(BIG5)의 하위요인별 성실성($\beta=.386, p<.001$), 외향성($\beta=.187, p<.001$), 친화성($\beta=.103, p<.01$)이 셀프리더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격특성(BIG 5)의 하위요인별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취업준비 대학생의 성격특성(BIG 5)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F	R ² (Adj.R ²)
	B	S.E	β				
(상수)	.883	.174		5.084	.000	85.598 ^{***}	.394 (.389)
외향성	.183	.043	.187	4.265 ^{***}	.000		
친화성	.110	.041	.103	2.689 ^{**}	.007		
성실성	.406	.048	.386	8.383 ^{***}	.000		
신경성	-.027	.025	-.034	-1.041	.298		
개방성	.041	.040	.038	1.029	.304		

종속변수 : 셀프리더십

p<.01, *p<.001

3) 가설3의 검증

취업준비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5.2%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360.097, p<.001). 독립변수로서 셀프리더십($\beta=.593$, p<.001)은 진로준비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취업준비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F	R ² (Adj.R ²)
	B	S.E	β				
(상수)	1.024	.126		8.106	.000	360.097 ^{***}	.352 (.351)
셀프리더십	.673	.035	.593	18.976 ^{***}	.000		

종속변수 : 진로준비 행동

p<.01, *p<.001

4) 가설4의 검증

취업준비 대학생의 성격특성(BIG5)과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성격특성(BIG5)의 하위요인별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성, 개방성은 1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셀프리더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조건을 충족하였고(p<.001), 2단계 매개조건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성격특성(BIG 5)의 하위요인별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성, 개방성

은 종속변수인 진로준비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조건을 충족하였다($p < .001$). 3단계 매개조건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성격특성(BIG 5)의 하위요인별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성, 개방성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면서 2단계보다 감소하였고, 매개변수인 셀프리더십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셀프리더십은 성격특성(BIG5)의 하위요인별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성, 개방성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성격특성(BIG5)과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구분	검정단계	β	t	p	F-value	R ²	채택유무
외향성	1단계	.526	15.941 ^{***}	.000	254.112 ^{***}	.277	부분매개
	2단계	.524	15.824 ^{***}	.000	250.408 ^{***}	.274	
	3단계(독립)	.292	8.351 ^{***}	.000	233.586 ^{***}	.414	
	3단계(매개)	.439	12.554 ^{***}	.000			
친화성	1단계	.433	12.362 ^{***}	.000	152.815 ^{***}	.187	부분매개
	2단계	.455	13.142 ^{***}	.000	172.719 ^{***}	.207	
	3단계(독립)	.243	7.291 ^{***}	.000	220.788 ^{***}	.400	
	3단계(매개)	.488	14.612 ^{***}	.000			
성실성	1단계	.598	19.219 ^{***}	.000	369.375 ^{***}	.358	부분매개
	2단계	.571	17.913 ^{***}	.000	320.864 ^{***}	.326	
	3단계(독립)	.337	9.152 ^{***}	.000	244.408 ^{***}	.425	
	3단계(매개)	.392	10.654 ^{***}	.000			
신경성	1단계	-.175	-4.574 ^{***}	.000	20.921 ^{***}	.031	부분매개
	2단계	-.169	-4.422 ^{***}	.000	19.552 ^{***}	.029	
	3단계(독립)	-.068	-2.133 [*]	.033	183.288 ^{***}	.356	
	3단계(매개)	.581	18.361 ^{***}	.000			
개방성	1단계	.370	10.268 ^{***}	.000	105.430 ^{***}	.137	부분매개
	2단계	.374	10.379 ^{***}	.000	107.719 ^{***}	.140	
	3단계(독립)	.179	5.419 ^{***}	.000	202.433 ^{***}	.379	
	3단계(매개)	.527	15.992 ^{***}	.000			

* $p < .05$, *** $p < .001$

V. 결론

본 연구는 취업준비 대학생의 성격특성(BIG5)과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에서 셀프리더

십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설계된 연구이다.

본 연구에 대한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준비 대학생의 성격특성(BIG5)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성격특성(BIG5)의 하위요인 중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준비 대학생의 성격특성은 진로준비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취업준비 대학생의 성격특성(BIG5)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성격특성(BIG5)의 하위요인 중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준비 대학생의 성격특성은 셀프리더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취업준비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취업준비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셀프리더십이 성격특성(BIG5)과 진로준비 행동과의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성격특성(BIG5)의 하위요인별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성, 개방성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도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C시의 C대학과 M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본 연구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자기보고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자료수집 과정에 학생들의 주관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취업준비 대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취업지도에 필요한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계수(2011).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 김봉환(1997). 대학생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봉환 · 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상담 및 심리치료. 9(1). 한국심리학회. 311-333.
- 김선중(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김성양(2019). 대학생의 진로개발 지원, 진로역량, 진로적응성, 진로준비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김재경(2007). 조직구성원의 성격유형과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대학원.
- 권나영(2019). 외식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노윤신(2016). 대학생의 진로적응력과 주도적 성향, 불확실성 불관용, 진로탐색 행동 및 진로의 사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정희 · 김홍석(2009).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1). 한국청소년학회. 125-144.
- 박헌일 · 김기원(2003). 군집분석을 통한 진로미결정 집단의 유형연구: 전문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교육학논총. 24(2). 대경교육학회. 161-187.
- 박효식(2019).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몰입, 진로동기, 진로태도 성숙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신용국 · 김명소 · 한영석(2009). 셀프리더십 척도 타당화 연구: 우리나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 한국심리학회. 313-340.
- 이경임 · 안창규(1996). NEO-PI-R의 임상적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8(1). 한국심리학회. 65-79.
- 이성희(2020).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그릿, 진로결정 수준, 진로탐색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이애용(2020). 관광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정서지능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이예진 · 이기학(2010). 진로동기 수준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 : 자기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9(2) 한국직업교육학회. 267-287.
- 이현민(2020).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 관계성, 진로탐색 행동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임은미 · 이명숙(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학생상담연구. 1. 전주대학교. 101-113.
- 장현지 · 홍아정(2014).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성찰학습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3(2). 직업교육학회. 17-40.
- 채서일(2005).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제3판. 서울: 비엠엔북스.
- Buss, A. H.(1989). Personality as traits. *American Psychologist*, 44, 1378-1388.
- Costa, P. T. Jr., & McCrae, R. R.(1992). *NEO-PI-R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Houghton, J. D., & Neck, C. P.(2002).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8), 672-691.
- Lounsbury, J. W., Park, S. H., Sundstrom, E., Wiliamson, J. M., & Pemberton, A. E.(2004). Personality, career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Test of a directional model.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2(4), 395-406.
- Manz, C. C.(1986),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 585-600.
- Manz, C. C., & Neck, C. P.(1999). *The journey & mapping theroute.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ing your self for personal excellence(1-7)*. NJ: Prentice-Hall.
- McCrae, R. R., & Costa, P. T. Jr.(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81-90.
- Meyer, B. W., & Winer, J. L.(1993). The career decision scale and neuroticis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2), 171-180.
- Neck, C. P., Stewart, G. L., & Manz, C. C.(1995). Thought self-leadership as a framework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performance appraiser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1, 278-302.
- Niles, S. G., & Harris-Bowlsbey, J.(2009). Career development interventions in the 21st Century. Education Review. Retrieved from <https://edrev.asu.edu/index.php/ER/article/view/222>
- Randolph, K. L., & Dahling, J. J.(2013). Interactive effects of proactive personality and display rules on emotional labor in organizatio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3(12), 2350-2359.

ABSTRACT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lead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ity Traits (BIG5) of University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Kim, Yong-jun*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Masan University
(E-mail: social-kim@masan.ac.kr)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ity traits (BIG 5) of university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after explaining the purpose of the survey to a total of 665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among the 2nd, 3rd, and 1st grade students who are expected to graduate from M University and C University located in C city. The investigation period of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one week between September 07 and September 11, 2020, and th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by the investigator's visiting in person.

The result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seen that among the personality traits (BIG5) of university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the sincerity, extroversion, and affinity have an important effect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Second, it can be seen that among the personality traits (Big 5) of university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the sincerity, extroversion, and affinity have an important effect on the self-leadership. Third, it can be seen that the self-leadership of university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has an important effect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Fourth, in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with personality traits (BIG 5)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self-leadership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effects of extroversion, affinity, integrity, nervousness, and openness by sub-factors of personality traits (BIG5) on job preparation behaviors.

Overall, it was found that i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rsonality trait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suggesting that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mployment of students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coaching program that prepares careers according to personality traits when counseling for employment. In addition, self-leadership appears as an important mediating effect on personality traits and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and so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upport students' employment guidance through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hat can improve students' leadership.

Keywords : personality traits (BIG 5),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self leadership